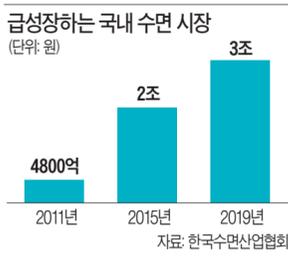


보일러·IT기업도 '꿀잠' 팝니다

잠이 부족한 현대인을 돕는 수면 제품들이 진화하고 있다. 수면시간을 늘리는 데 치중하던 기존 제품들이 정보기술(IT)과 결합하면서 깊은 잠을 유도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 숙면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수면 제품에서 숙면 제품으로 한국은 수면 부족 국가로 분류된다. 수면 장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해 64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시장조사업체 입소스의 2018년 조사 결과 한국인의 35%만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27개국 평균인 49%보다 14%포인트 낮은 수치다.



3兆 '슬리포노믹스' 산업 급성장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등 숙면 유도제품 잇달아 출시

호흡·뒤척임·맥박 등 분석 IT 결합한 기기도 등장

이브자리·시몬스침대 수면연구센터 운영

음 컨 뒤 30분 동안 따뜻하게 잠들기 좋은 온도를 유지하고, 이후 숙면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린다. 기상 1시간 전부터는 온도가 상승해 사용자가 개운하게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IT기기도 숙면 유도 기능 담아 수면 관련 IT기기들은 사용자가 잠자는

동안 호흡, 맥박, 뒤척임 등을 분석해 건강한 습관 형성을 돕는 기능을 담고 있다. 글로벌 웨어러블기기 업체 핏빗은 '핏빗 차지4'에 이용자의 수면 상태를 분석해 최적 시간에 깨워주는 '스마트 웨이크' 기능을 더했다. 산소량 변화를 예상해 수면 중 호흡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수면 단계별로 실제 수면시간과 평균치 정보를 제공한다.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의 새 운영체제는 수면 추적 기능을 기본으로 넣었다. 호흡을 통해 수면시간을 확인해 주고, 취침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스크린 밝기를 조절하며, 부드러운 음향으로 숙면을 돕는다.

기존 침구 및 침대 업체들도 숙면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침구업체 이브자리는 2003년 수면환경연구소를 설립해 쾌적하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숙면을 돕는 6분할 베개 특허를 취득했다. 한국수면센터와 공동으로 코골이 개선 전신 베개를 출시하기도 했다. 또 개인 맞춤형 수면 브랜드 '슬립앤슬립'을 통해 소비자의 수면 형태 및 습관, 체형 등을 참고해 꼭 맞는 베개와 이불 등을 컨설팅해주고 있다.

침대업체 시몬스는 2007년부터 '수면 연구 R&D(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별 기온과 습도에 따른 최상의 수면 환경을 연구한다. 뇌파를 측정해 매트리스에 따른 수면의 질도 분석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피씨엘, 가정용 코로나 진단키트 美서 내놓는다

FDA 긴급사용승인 심사 중 독감·코로나 동시진단 키트도 개발 이달 말 유럽 CE인증 허가 예정

피씨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생성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체진단키트를 미국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보건당국이나 의료기관이 아니라 약국에서 일반인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독감) A형과 B형, 코로나19 등 감염병 3종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김소연 피씨엘 대표(사진)는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를 개발해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씨엘은 해당 진단키트의 미국 판매를 위해 미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사용승인(EUA)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제품이 EUA를 받게 되면 지난 3월 수전택에 이어 국내 업체로는 두 번째가 된다.

이 진단키트는 10분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진단 제품이다. 미국에서 EUA를 받은 항체진단키트는 세계적으로 45개 제품이 있다. 이 가운데 신속 진단이 가능한 제품은 수전택 제품을 포함해 14개다. 피씨엘은 FDA 지침에 맞춰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신속 진단키트를 내놓기 위해 현지 평가기관 두 곳에서 임상을 하고 있다. 이 제품이 EUA를 획득하면 검사 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첫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가 될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양성으로 인지하는 정도인 민감도에서 FDA 요구 기준인

90% 수준을 충족한 만큼 EUA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임신, 당뇨, 자궁경부암 등과 관련된 일부 진단키트만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품의 약국 판매가 어렵다.

다른 코로나19 관련 진단 제품군 개발 전략도 공개했다. 항원진단키트는 EUA 획득을 위해 미국에서 임상을 마쳤다. 항원진단 방식으로 EUA를 받은 코로나19 진단키트는 4개 제품뿐이다. 국산 제품은 아직 하나도 없다. 피씨엘은 코로나19와 A형 독감, B형 독감을 한번에 진단할 수 있는 항원진단키트도 개발을 마쳤다. 유럽 제품 인증 절차인 CE인증, 미국 EUA, 국내 허가 심사 등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이달 말이면 유럽에서 CE인증을 받고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 진단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deep@hankyung.com



월드클래스 중견기업 560여명 현장서 채용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다. 정부가 청년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청년의 날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16일 '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13년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그동안 월드클래스 등 우수 중견·중소기업 695개사가 참여해 3705명을 채용했다. 66곳이 참여한 올해는 560여명을 뽑을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행사를 통해 공장 자동화 솔루션 업체에 입사한 김모씨는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못지않은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 속에 개인 역량을 적극 개발해주는 회사"라며 "구직자들이 올해도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수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이 16일 열렸다. 이 행사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오는 25일까지 계속된다.

청년인재 채용 '잡 페스티벌' 25일까지 비대면 3D로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채용 상담부터, 채용설명회, 면접까지 모두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구직자들이 게임을 하듯 채용관을 순회하며 상담받을 수 있도록 '3D 가상현실 채용박람회'로 운영된다. 산업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월드클래스 기업이 고졸 인재를 채용할 경우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공계 석·박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기업이 청년 인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넥스트리스트 "오디션 투표 공정성 시비 걱정 끝"



콘텐츠 플랫폼 '마이스타픽'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6일 서울 도화동 블록체인지원센터에서 만난 이민재 넥스트리스트 대표(사진)는 "지금껏 아이돌, 뷰티 콘텐츠 등의 투표가 갑갑이로 진행한 탓에 공정성 시비가 많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플랫폼 '마이스타픽'을 개발하고 고양시장배 보디빌딩 대회, 미스터인터내셔널 한국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 대회에 적용하고 있다. 마이스타픽은 개별 투표를 자동으로 취합해 공개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저장소는 30여 개 대기업이 참여한 카카오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활용한다.



이민재 대표 "블록체인 기반 조작 위험 없어 신뢰도 높여"

투표 결과에 불공정 시비가 생기면 블록체인에 기록된 자료와 비교해 보면 된다. 넥스트리스트는 이런 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콘텐츠 플랫폼을 지난해 특허출원했다.

콘텐츠 투표에 마이스타픽을 적용하면 투표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외부의 해킹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런 장점을 활용해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업계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ARS(자동응답시스템), 문자메시지 등 기존 투표 방식에 비해 관리 비용이 저렴한 것도 이 플랫폼의 매력이다.

콘텐츠 참가자는 마이스타픽에 게재된 자신의 프로필을 SNS 등에 공유할 수 있어 편리하다. 지역에 상관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나 콘텐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팬덤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 대표는 "마이스타픽은 대회의 신뢰와 흥행성을 높이면서 수익성까지 제고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며 "팬덤을 활용해 추가로 투표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유료 투표권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넥스트리스트는 지난해부터 국내 콘텐츠 여섯 곳에 콘텐츠 플랫폼을 제공했다. 국내외 주요 뷰티 콘텐츠 주관사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20여 개 콘텐츠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방침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초영화제
20th Korean Film Festival

제 5 회
커피
29초영화제
2020. 8. 19.(수) ~ 9. 29.(화)

인생은 여행!
청춘은 달고나!

입상에 대한 청춘들에게
커피 한 잔으로 떠나고
이 땅의 실패와 함께 하는
반짝이는 별처럼 인생의
꿈표를 만나다.

주 제 with Coffee | 커피와 함께 하는 모든 이야기

출 품 자 격 제한없음 (국내외 누구나)

부 문 일반부, 청소년부

총 상 금 2,000만원

접 수 방 법 29초영화제 홈페이지 (www.29sfilm.com) 온라인 출품 (업로드)

출 품 규 격 29초 길이의 모든 영상 (제목, 크레딧 제외) *자세한 규격은 홈페이지 참고

주 최 한국경제신문

주 관 29초영화제사무국

문 의 director@29sfilm.com, www.29sfilm.com Q&A 게시판